

6년 표류 강진 테마파크 사업 곧 재개

504만㎡중 문화재 보호구역 빼고 96만5736㎡만 개발

지난 2006년 이후 6년간 지연됐던 '강진 테마파크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3월 (주)동승파크엔 리조트와 MOU를 체결하고 대구면 용운리 신94-2번지 일원에 '강진 테마파크'를 조성하려 했으나 문화재보호구역 저촉 등 인·허가 절차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

됐다. 그동안 군과 문화재청, (주)동승파크엔 리조트가 충분히 협의한 결과 지난 7월 긍정적인 협의점을 이끌어 내 사업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군은 총면적 504만8514㎡중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되지 않는 대구면 용운리 용족골 96만5736㎡에 대해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 8월말 관광단지 지정 신청했다.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문화재 지표조사와 가마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재신청해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요구와 주변자연에 최대한 살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강진 테마파크는 앞으로 크게 ▲경

관지구 ▲조경테마지구 ▲산림지구 등 3가지 테마로 나눠 꾸며진다. 총공사비 780억을 들여 힐링센터와 휴양 콘도미니엄, 산림욕장, 스파, 야생 녹차밭, 테마공원 등이 조성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 테마파크가 준공되면 매년 열리는 '강진 청자 축제' 기간동안 관광객들에게 부족한 숙박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최근 담양군청 공무원 정책연구 모임이 개발한 죽순 미니 햄버거·대나무 효소 김치 등을 맛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죽속원 시식화장을 찾아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gg@

공부하는 공무원들 담양을 바꾸다

군청 직원들 정책연구 모임 각종 아이디어 발굴 군정 반영

담양군청 직원들이 지난해부터 '공무원 정책연구 모임'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갖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해 군정에 반영하고 있다.

13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55명이 자발적으로 '정책연구 모임'을 구성해 1년여 동안 꾸준히 정기모임과 주제별 토론회, 벤치마킹 등 열정적인 연구활동을 펼쳤다.

특히 일선 행정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경제 분야(2개)·자치농정 분야(1개)·관광 분야(4개)

등 실용적인 주제들을 선정하고 연구해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올해의 경우 정책연구모임에 참가한 인원이 11개팀 9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은 ▲다시 돌아오는 마을만들기(탐방 행복마을 303) ▲지역특화음식 브랜드화로 수익창출 방안(자미탄) ▲기숙형 공립중학교 설립에 관한 연구(사고뭉치들) 등 지역경제와 지역개발·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발굴·연구했다.

특히 '자미탄' 팀은 최근 죽속원에서 죽순을 이용한 미니 햄버거

와 대나무 효소를 이용한 김치·음료 등을 개발, 시식회를 가져 호평을 받기도 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연구모임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뉴담양플랜'에 바로 반영시키도록 해 직원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군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오는 25일 직원들과 군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는 '연구과제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gg@



아파트 중도금대출 협약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지부장 최명수)와 LH공사 광주·전남 혁신도시사업단(단장 임석호)은 최근 광주·전남혁신도시 LH아파트 1226세대 중도금대출(약 800억원) 협약을 체결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형기자 chjung@

나주에 자동 기상관측소 3개소 설치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지역에 자동 기상관측소 3개소가 설치된다.

나주시는 올해 7억원을 투입해 자동 기상관측소 3개소를 설치해 지역별 온도, 토양수분 함량 등 농업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수집 분석해 과학영농 기초자료와 극지성 기상재해에 따른 재해보험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병해충 예방장비를 27곳에 조기 설치해 예방정보를 실시간 제공, 효율

적인 병해충 방제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철저한 배나무 관리를 통해 내년 농사 대비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유관기관·선도농가·학술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원 사후관리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현장 기술지도와 컨설팅 및 농가교육을 통해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중부취재본부=송영철기자 ycsn@

태풍피해 농민 위로 굿관 벌인다

내일 능주 복지회관에서 '씻김굿' 공연

속박·예속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이날 공연은 혼맛이를 시작으로 조왕굿→안당굿→문전굿→선부리굿→제석굿→오구굿→고풀이→씻

김굿→길닭음→대신치기(중천막이)→사신거리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될 능주 씻김굿은 전체 12거리 중 혼맛이, 선부리굿, 제석굿, 고풀이, 길닭음 등으로 이뤄진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능주씻김굿 기능보유자 박정녀(84)씨는 "이번 굿은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군민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한과 갈등을 모두 치유하는 굿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능주 씻김굿'도 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종합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담양군 블루베리 시험연구 박사 벼 대체작목 집중육성

담양군이 '10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블루베리를 활용해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시험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벼 대체소득 작목전환을 위해 블루베리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또 자체 운영하는 '농업인 대학'에 2009

년부터 블루베리 과정을 신설해 지역에 알맞은 재배기술을 정립·보급하는 노력을 해왔다.

센터는 4~5년 전에 심었던 블루베리 나무가 성숙(成木)이 되면서 수확량이 증가하고, 외국인 블루베리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안전 생산 기술과 재배방법, 품종선택 등

'담양산 블루베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에 나섰다.

한편 담양지역 블루베리 재배면적은 85ha로 전남 재배면적의 52%를 차지하며, 연 68억원의 농가수익을 올리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gg@

전 북

교사·학생·학부모 100% 동의해도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1년간 유예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이 100% 통·폐합에 동의하더라도 1년간 이를 유예하는 '숙려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학교구성원이 통·폐합에 동의할 경우 곧바로 시행했으나 이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농·산·어촌 작은 학교 희망 찾기 학교장과 함께 하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태스크포스(TF)팀에 작은학교 부흥의 컨트를 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복안이다.

또 도교육청은 학부모대상 자체 설

문조사 결과 농·산·어촌학교 활성화의 중요성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 도입이 다수 의견을 차지한 만큼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복지사업 우선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농·산·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교육협력력을 강화해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펼치는 한편 정치권과 연계해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귀촌·귀농으로 농·산·어촌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이들 학교 살리기의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기업하기 좋은 순창' 만들기 황수주 순창군수가 최근 풍산 농공단지에 입주한 면사 생산업체 한국씨엔티(주) 순창공장을 방문해 회사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진후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고창군 한우농가 종합컨설팅 지원

고창군은 최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 2년째 종합 컨설팅을 통해 경영구조개선 등 현장고충을 해결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 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과 고창군은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한우농가 40명을 대상으로 경영, 개량 및 번식, 사양관리, 조치사료, 가족질병 분야에 대해

전문가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종합 컨설팅은 사전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분야별 최고전문가로 팀을 구성, 지역 축산농가의 호응을 받았다.

고창군 관계자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추후 현지 방문을 통해 당면한 고충사항이 해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15~16일 천년 전주 한옥마을 배드민턴 대회

'제4회 천년전주 한옥마을 배드민턴대회'가 15~16일 이틀간 전주시 화산체육관에서 열린다.

전주시 통합체육회 주최·전주시 배드민턴연합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 시·도 900팀 2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클럽대항, 일반 혼합복식,

개인복식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주시 통합체육회 관계자는 "전국에서 많은 배드민턴 동호인들과 클럽들이 참가함으로써 명실공히 전국 최고 권위의 대회로 거듭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배드민턴 저변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

시민단체 "반대 운동 펼칠 것"...기초의회 5곳은 동결

전북도의회가 물가상승과 의원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정읍시의회와 순창군의회, 고창군의회, 부안군의회, 진안군의회 등 5개 기초의회는 태풍 피해 등을 이유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선언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북도의회 각 상임위원장은 지난 10일 회의를 갖고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키로 결정하고, 이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도지사가 의장과 교육계, 법조계, 시민단체, 통일장 등의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위촉·구성되며, 실질적인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도의회는 인상 결정에 대해 전북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하위 14번째, 9개 도 단위에서는 하위 7번째의 인상을 책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의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2008년 이후 4년 연속 의정비가 동결된 점과 물가인상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도의회 의정비 인상은 이미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한 도내 5곳의 기초의회의 움직임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 5년째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 부안군의회 역시 최근 의원간담회를 열고 2013년도 의원 의정비를 모두 동결키로 결정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의회가 교육의원들의 해외여행 돈부투 사건 등 소속 의원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은 채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행위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지난 2008년 의정비를 인상한 후 올해까지 4년 연속 4920만원(월정수당 3120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으로 동결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박기섭기자 knews@

단 신

전주시 '이주여성 고국에 정 보내기' 사업

추석명절을 맞아 전주시는 전주 우체국·동전주우체국과 공동으로 '결혼 이주여성 고국에 정(情) 보내기 사업'을 추진, 해외 배송비를 지원한다.

결혼 이주여성에게 지원되는 해외 물류비는 1인당 5만원으로, 우체국의 전체 운송비의 15%를

할인 적용한다. 또 1만~2만원 상당의 라면 등 생필품과 EMS(국제 특송) 상자도 지원한다.

9월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은 ▲중국 903명 ▲베트남 426명 ▲일본 119명 ▲필리핀 86명 등 총1754명에 달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푸른정읍 의제21 추진협 협동조합 시민강좌

2012년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협동조합을 주제로 한 시민강좌가 지난 10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푸른정읍 의제21 추진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강좌는 전북농업정보증재단 문철상 이사장을 강사로 초빙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 협동조합'이란 주제로 실시됐다. 협동강좌는 ▲17일 '원주협동조합 운동의 사례'(김선기 원주협동조합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 ▲24일 '협동조합 기본법의 의미와 필요성'(황영호 전북발전연구원)에도 진행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 내년도 예산편성 토론회

이한주 남원시장은 12~13일 이틀간 2층 회의실에서 농정, 문화관광·체육 등 핵심 정책과제별 5개 분야에 대해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평소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통해 분야별 관련단체 간담과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

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달성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시는 토론회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순창군 태풍피해 주민 세제 혜택

순창군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건축물이나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파손돼 세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주민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군은 태풍이나 폭우로 재산상 손실을 입어 재산관리프로그램

에 피해상황을 전산 입력한 농가에 한해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기한연장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게 된다.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해 군청 재무과(063-650-1356)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